

최우선 해야 할 절대망대

(히11:4)

서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최우선 해야 할 인생의 망대는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의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우리의 시간표와 상황에 맞는 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1. 예배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

- 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원래의 인간을 회복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창1:27-28).
- 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복음과 예배를 알고, 종교를 선택해 귀신을 섬기게 하고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 다. 오직 예수로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나 중심을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갈2:20).
- 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서밋의 축복과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2.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 가. 인생 최고로 은혜받는 시간이며,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 언약이 전달되는 예배의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힘을 얻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 나.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을 통해 속이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다. 모든 것 이전에 예배부터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결론: 예배는 나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 전달된 언약이 셋과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자리와, 확보해야 할 시간이 있다면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것은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이며, 예배를 놓치고 안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